技術의 객관적 평가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여러해동안 연구하고 검토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 '콤퓨터'라고 하던 전자계산기를 '컴퓨터'라고 하며 한글표기에도 조합형과 완성형이 있고 또 새롭게 좋은 것이 있고 또 새롭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변화 · 발전되고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기가 어렵다.

개인과 조직이 입장 · 연령 · 생활여건 · 교육경험 등의 차이에 따라 행동의 한계와 판단이 제각기 다를 수 있어 자기중심적인 노력의 객관적인 평가, 주의주장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知識技術製品의 객관적인 평가 등 객관성이 선진 기술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MIS(경영정보시스팀)를 IMS(경영자료관리시스팀)로도 통용하듯이 HW, OS, DB, SW개발방법과 도구, SW PACKAGE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평가도 제눈의 안경처럼 주관적인 관념보다는 객관적인 편리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처음 10년간은 COMPUTER 도입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불평도 있었고 그 다음 10년은 사무인력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도구와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세살어린아이도 컴퓨터 게임을 할 줄 아는데 30년이 다되어

李勝大
한국사무전산(주)대표이사

가는 전산경험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아직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산화 추진방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과 제품의 장·단점을 남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자세에서 객관성이 시작된다.

한글이 없었던 시대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熊女'라는 漢字語를 아름답고 인간적인 '곰여'라는 이름의 할머니로 표현할 수 있는 SOFT한 사고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믿는다.